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인가? : 국내와 국제적 대응 관점에서

까오징차오* · 방성운** | 경북대학교

차 례

- | | |
|---------------------|------------------------|
| I. 서론 | 1. 코로나19 진원지 문제 |
| II. 코로나19 국내적 방역대응 | 2. 백신개발 프로젝트와 공공재화 |
| 1.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 | IV. 중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와 과제 |
| 2.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 1. 국내적 대응 평가 |
| 3. 대중의 방역 참여 | 2. 국제적 대응 평가 |
| III. 코로나19 국제적 방역대응 | V. 결론 |

• 국문요약 •

2019년 발생한 코로나 19는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까지 일순간에 확산되었고, 인류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으로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의 진원지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백신의 공공재화 문제는 백신 외교전으로 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체제안정과 국외적으로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에서 대응전략 및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적 대응으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처, 대중 참여를 알아본다. 국제적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진원지 문제와 백신개발 문제를 알아보고 평가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대응체계, 대중참여, 코로나 진원지, 백신

*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과정 : 주저자.

**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I. 서론

2000년대 들어 SARS,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로 인한 초국경 감염병의 확산이 늘어나면서 국가 간의 조정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고, 초국경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류에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고,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는 돌발적이고 확산적이며 초국가적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로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까지 일순간에 확산되었다. 이에 전 세계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가 간 협력을 이루지 못하였고, 보건의료 체제문제 및 경험부족과 안일한 대처로 인해 전 세계는 인류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과감한 조치로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 ‘방역을 위해 국제사회에 시간을 벌여준 희생 국가’, ‘방역의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의료물자 원조와 의료진을 파견한 공헌 국가’로 WHO의 인정을 받았다.¹⁾

그러나 중국의 공적인 노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구 국가들은 중국에 코로나19 발발에 대한 책임만 묻고 코로나19의 방역 성과는 부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의 진원지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백신의 공공재화 문제는 백신 외교전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전략 및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려 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안보문제가 상위정치(high politics)인 군사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하위정치(low politics)영역의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자연재해, 환경오염, 전염병과 같은 다양한 이슈로 쟁점이 전이되면서 비전통 안보문제가 또 다른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다.²⁾ 이는 안보의 영역이 다양화되었다는 의미로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 바이러스의 발생은 이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비전통적 안보 요소로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발생은 국내적으로는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을 준비하며 중국몽(中国

1) “面对西方舆论攻击，三个事实让中国的力量空前强大”，『新浪财经』，<http://finance.sina.com.cn/wm/2020-03-30/doc-iimxyqwa4108292.shtml>(검색일: 2021.08.17).

2) 방성운, “코로나시기 비전통 안보의 재조명 - 중국의 新时代 식량안보관과 한국의 전략-”, 『대한정치학회보』, 29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21), p.220.

夢), 전면적소강사회(全面的小康社会)실현을 준비하는 중국에게 국가 통치체제와 대응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위협요소로, 국제적으로는 기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분쟁을 넘어 패권경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위협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중국의 국내의 정치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의료적 행위가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체제안정과 국외적으로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정치적인 대응 전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기존연구는 중국의 중앙정부의 지도체계 혹은 우한시와 북경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지도체계와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을 국내적 대응과 국제적 대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응방식이 적절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중국의 국내적 대응으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처, 대중 참여를 알아보려 한다. 국제적 대응 방면에서는 먼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진원지 문제를 확인하고 백신개발과 공공재 문제를 살핀 뒤, 국내외적 평가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고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초 국경 공공위기 상황에서 각 개별 국가는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거나 일방적 조치를 선택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자국의 안전을 위해 유럽 국가들과 사전논의 없이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 비판을 받았다.³⁾ 반면, 중국은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하며 방역물품 지원·원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진원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반증정서는 확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분석하여 방역 평가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코로나19 국내적 방역대응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2월12일 감염

3) 정동훈, “EU, 트럼프 ‘유럽발 입국 금지’에 “일방적 조치” 비판”, 『MBC뉴스』, https://imnews.1mbc.com/news/2020/world/article/5671666_32640.html (검색일: 2021.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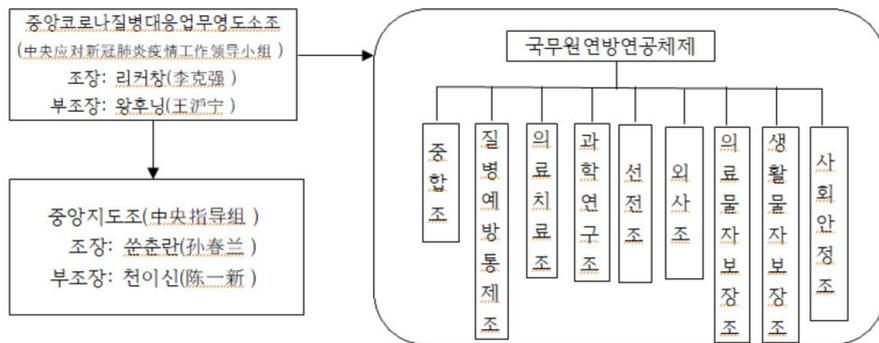
자 수가 15,152명에 달했고, 그중 후베이성 확진자가 13,332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중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봉쇄 조치 2개월 만에 일일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로 억제되었고, 2020년 3월 18일 이후 중국 국내 감염자 수가 0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은 우한 봉쇄를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중국 국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로 인해 감염자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규모 확산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중요 지시를 내리는 등 방역 업무를 직접 지휘하고 배치하였다.

2021년 1월 23일 우한을 봉쇄한 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업무 보고를 받고 바이러스 방역과 퇴치, 특히 환자의 치료업무와 관련해 인력과 재정을 재확인하고 배치·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중앙 코로나 질병 대응 업무 영도소조(中央应对新冠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설립하여 후베이성 등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 방역 활동 지도를 위한 중앙 지도조(中央指导组)를 파견하여, 방역 업무 강화를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기구로는 중앙 코로나 대응 업무 영도소조가 있고, 국무원 연계예방·연계방어 체제(联防联控)와 중앙 지도조가 있다. 중국 중앙의 코로나19 대응기구의 지휘체계는 <그림 1>과 같다.



출처: 연구자 정리

<그림 1> 중국 중앙 정부 코로나19 방역 조직도

중앙 지휘 체계는 우선, 중앙 코로나 대응 업무 영도소조가 있다. 중앙 코로나 대응 영도소조는 리커창 총리를 조장, 왕후닝을 부조장으로 하여 전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지휘하는 것이다. 주된 활동은,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내린 지시나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국무원 연합 통제기계에 하달하여 전국적으로 집행되도록 조치하는⁴⁾ 것이었다.

둘째는 국무원 연계예방·연계통제 체제(联防联控)이다. 중앙 코로나 대응 업무 영도소조가 설립된 이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주도의 연방연공체제는 국무원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국무원 연계예방·연계통제 체제 산하에는 종합조(綜合組), 질병예방통제조(疫情防控組), 의료치료조(医疗救治組), 의료문자보장조(医疗物资保障組), 생활물자보장조(生活物资保障組), 과학연구조(科研攻关組) 선전조(宣传組) 외사조(外事組) 9개의 공작조를 설치하였다. 각 공작조는 조장 단위로 근무하며, 전염병 분석 연구, 환자 의료 구제, 의약품 및 물자 공급 보장, 환자 치료, 의료진의 안전 보장, 시장의 공급 보장, 여론 선도, 사회 역량 조직 동원, 사회 안정 등의 방역 업무를 진행하였다.

셋째로 중앙 지도소가 있다. 쑨춘란(孙传兰)을 조장으로 하는 중앙지도소는 2021년 1월 27일 우한에 도착해 상주하며 전염병 예방 치료, 물자 보급, 감찰, 정보 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처리했다. 중앙지도소는 우한에 도착하여 사구(社区)의 기초적인 격자화 관리, 인구 조사, 건강 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현지 식료품의 품질과 가격, 배송 등의 상황을 확인하여 물자보급과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임시 치료 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인과 환자를 격려하고,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재개와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였다.⁵⁾

쑨춘란(孙传兰)은 우한에 도착한 이후 현장 방역 책임자로 코로나19 방역 업무 태만과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역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간부에 대해 경질 처리하였다. 장차오량(蒋超良) 후베이성 당서기와 마궈창(马国庆) 우한시 당서기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경질되었고, 후임으로 후베이성 당서기에는 잉용(应勇) 상하이 시장이, 우한 당서기에는 왕중린(王忠林) 지난(濟南) 시장이 각각 임명됐다.⁶⁾ 그리고 우한시 홍산취(洪山區) 민정국 당서기 스홍(司洪)은 행정지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업무

4) 조영남,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분석: 중앙의 지도체계와 선전 활동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4권 제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0), p.21.

5) “孙春兰率中央指导组赴湖北随州指导强调 关口前移, 为群众守好健康之门”, 『人民网』, <http://cpc.people.com.cn/n1/2020/0218/c64094-31591420.html> (검색일: 2021.07.09).

6) “蒋超良被免内幕 鍾南山團隊披露武漢始末”, 『華客』, <https://hcx.eu/news/75268.html> (검색일: 2021.12.17).

이해도가 낮고, 비효율적인 통제 조치로 문책 받았다. 동후까오신취(东湖高新区) 국토자원 기획국 간부 리치(李淇)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에 능숙하지 않은 대체 근무자를 세웠다가 방역 업무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경고 조치되었다.⁷⁾ 하지만 성공적인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징계의 수위는 강하지 않았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한 포상과 표창에 적극적이었다.

그 외에 중국 중앙정부 예하 각 부처 역시 방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재정부(财政部)는 주민들이 의료비용 때문에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금문제로 의료구제나 방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와 상무부(商务部)는 채소와 식품 등의 일상 소비품의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생필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였다. 중국 해관(海关)은 전국의 통관 현장에 전문 접수창구를 설치해 방역치료 전용 수입 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무지연’ 통관을 진행해 최단 시간에 방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의 통합된 지휘에 따라 코로나19에 방역업무에 대응하였다.

2.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앙에 국무원 연합 통제기제가 수립된 직후 지방 역시 현급(县级) 단위에서부터 기층 단위인 사구(社区)에까지 수직적 방역 지휘기구가 설립되었고, 시(市)정부→구(區)정부→가도판사처(街道潘实处)→사구(社区 : 도시공동체)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⁸⁾

2020년 1월 20일 국무원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위원회는 사구(社区)의 주요 역할, 관련 업무 등에 잇따라 중요 지시를 내렸고, 2월 10일 시진핑 총서기는 사구가 공동 방역 통제의 최 일선이자 외부 유입, 내부 확산을 막는 방어선임을 강조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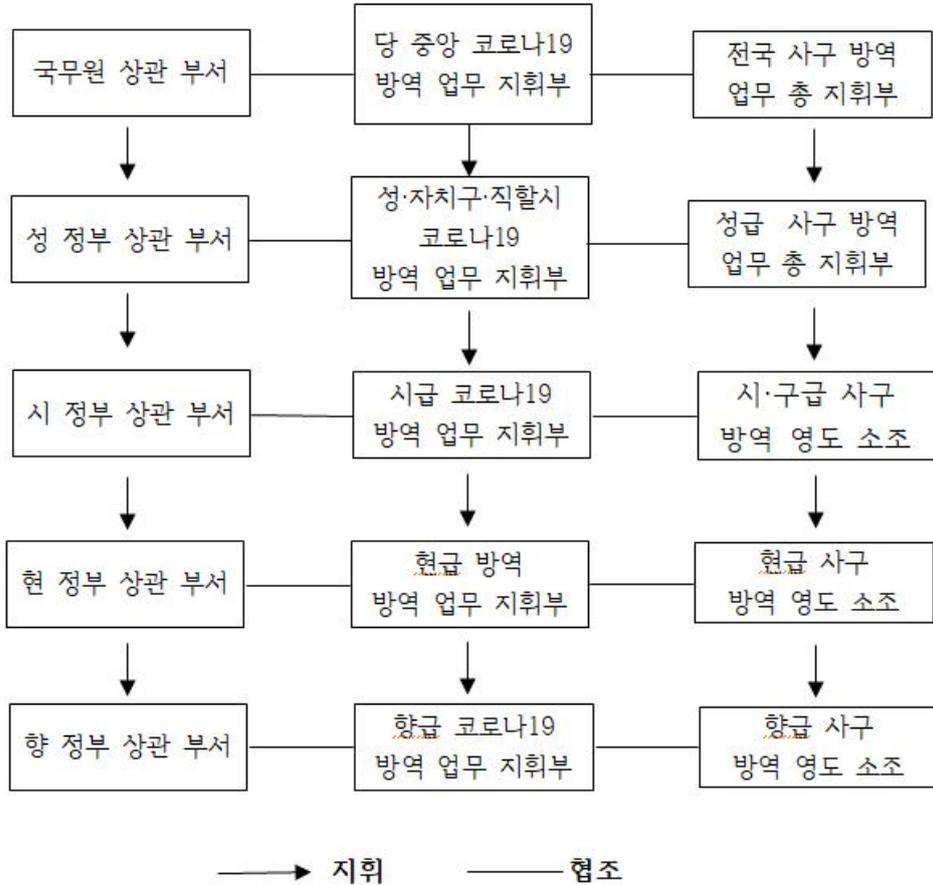
또한, <긴급공공위생 돌발 시 응급조례> 제40조에 따르면 “전염병 발발과 유행 시에, 가도(街道)와 향진(鄉鎮)의 주민위원회 및 촌민위원회는 사구 조직을 결성하여 위생관리 부서와 의료 위생기관의 전염병 정보 수집과 보고, 인원의 분산 및 격리, 공중위생 조치 업무

7) “武汉市纪委监委通报4起违反疫情防控工作纪律典型问题”, 『光明网』, https://politics.gmw.cn/2020-02/18/content_33564846.htm (검색일: 2021.07.09).

8) 王德起, “新冠肺炎疫情防控体系研究—基于“党建+”社区治理视角”, 『统计与管理』, 2021年 第4期, p.48.

9) 王德起(2021), p.47.

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협력하여, 주민에게 전염병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유추 할 수 있다.



출처: “新冠肺炎疫情防控体系研究—基于“党建+”社区治理视角”, 연구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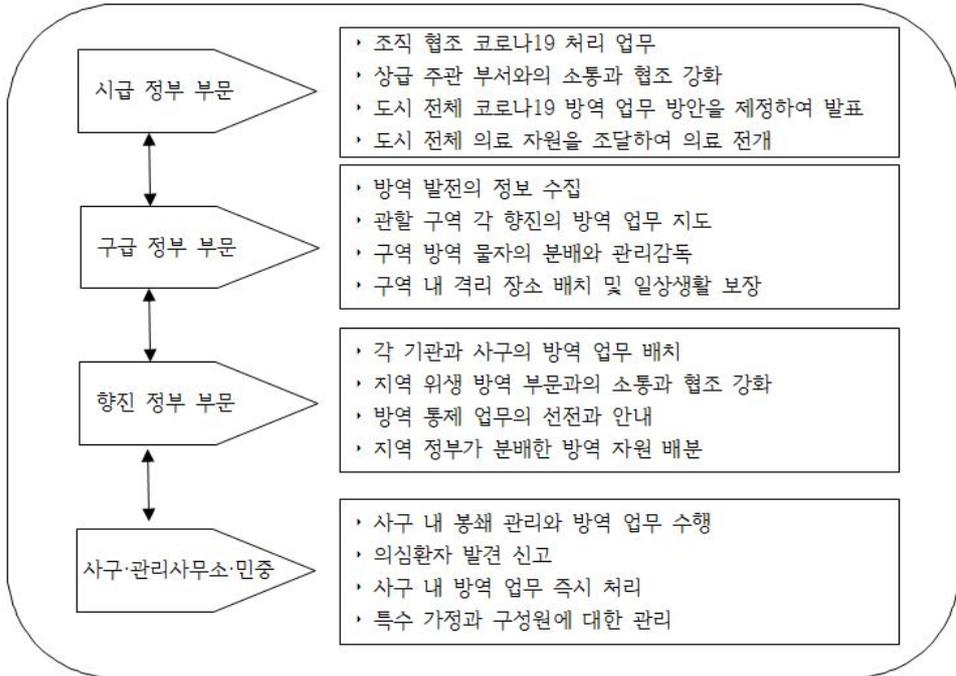
〈그림 2〉 중국 지방 정부 코로나19 방역 조직도

사구는 일정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도시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와 자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정책이다. 사구의 구성은 주민위원회, 아파트 소유자 위원회, 아파트 관리회사, 지원자, 사회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사구 관리 정책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격자화(网格化)관리로 일정한 주거지역을 그물망식, 그리드(grid)단위로 나누고 지역을 관리하는 격자관리원을 두어 주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격자화 관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및 개선되어 왔으며, 공공비상사태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고, 2003년 사스 방역은 격자화 관리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베이징 동청구(北京东城区)에서 실시한 정보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사구 격자화 관리는 강력한 사회 관리 효과를 보여주었고 이후 중국 전역에서 사구 격자화 관리를 도입하였다.¹⁰⁾

사구 격자화 관리는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물망식의 엄격한 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를 통해 감염자와 의심 환자를 의료기관에 보내고, 격리 치료하여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사구 격자화 관리의 시(市)급 이하 각 단위의 책임 업무는 아래 <그림 3>와 같다.



출처: 新冠肺炎疫情背景下的城市网络化防控和精细化管理¹¹⁾, 연구자 재정리.

<그림 3> 지방 각 급 정부 예방통제 업무 현황

10)王永龙,“疫情防控下社区网格化管理优化策略研究”,『攀登』,第40卷,2021년,p.93.

11)王兵,“新冠肺炎疫情背景下的城市网络化防控和精细化管理”,『中国名称』,Vol.35 No.7,2021,p.44.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후베이성 사구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구 내의 주택단지(小區), 촌, 기업에 봉쇄식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주택단지의 출입구와 촌과 촌을 연결하는 통로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한다.

둘째, 집단 활동을 엄금한다. 결혼 등 경사(紅事)는 전면 금지하고, 장례 등 애사(白事)는 간단하게 거행하되 반드시 보고한다.

셋째, ‘사구/촌→가도(街道)/향진(鄉鎮)→구(區)/현(縣)’으로 이어지는 질병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사구/촌은 초진(初診), 가도/향진은 집중 격리, 구/현은 집중 수용 치료를 담당한다. 사구/촌이 발열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가도/향진에 보고하고, 가도/향진은 이를 사구 위생 서비스센터와 향진의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관찰한다. 유사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현의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하고, 보통 발열환자는 가도/향진의 집중 격리시설에서 관찰한 후에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귀가 조치의 정책을 시행했다.¹²⁾

그리고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방역지식이 부족하며 노인들이 많아 감염이 쉽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집중했다. 농촌지역 보호를 위해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통일된 하나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24시간 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택했다.



적색 건강QR 코드:
1.출입 금지
2.사구(社區) 보고 후
방역기관에 소재지통보

황색 건강QR 코드 :
1.코로나19 재검사
2.건강QR코드만료 재신고

녹색 건강QR 코드:
1. 안전상태 통행가능

출처: 중국 바이두백과, <https://baike.baidu.com/item/%E5%81%A5%E5%BA%B7%E7%A0%81>

〈그림 4〉 중국 건강QR코드

12) 조영남, “중국은 어떻게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나?: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9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p.123.

이와 함께 중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격자화+ IT” 관리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사구 격자화 관리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합한 방식으로 핸드폰을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와 14일 간의 방문기록을 입력하면 개인의 건강QR코드가 생성되고, 이 QR코드는 현지에서 아파트, 호텔, 공항, 지하철역,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방역검사소 출입에 사용되는 개인용 전자 증빙 서류가 된다. 건강QR코드는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되고, 각 색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건강상태의 설명은 앞의 <그림 4>와 같다.

3. 대중의 방역 참여

코로나19 발생은 중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2003년 사스 때와는 비교 할 수 없는 많은 감염자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한시를 전면 봉쇄하여 경제적 타격도 많이 입었다. 이와 같이 돌발적 공공위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2003년 사스 발생 시기 예방과 통제 문제를 정부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여 정부를 제외한 기타 행위자는 참여 의식이 낮고, 국민의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높지 않아, 중국 정부가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나서야 사스 방역을 이룰 수 있었다. 사스 이후 중국 정부는 전염병 정보를 적시에 게시하고 예방 및 통제 지식을 대중에게 알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중국 시민들은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했다.

우선, 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지원이다. 적극적인 국민동참은 국민의 정신적 결속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중국은 시민의 참여 정신과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2월23일 중국신화사(新华社)의 속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한시에서 지원자를 모집한지 10시간 만에 1만여 명이 신청하였다.”고 밝혔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자가 모여들었다.¹³⁾

후베이성과 우한으로 중국 중의과학원 및 29개 성(구·시)과 군에서 68개 의료팀, 8310명의 의료진이 방역 작업을 위해 지원했다. 의료진은 치료 뿐 아니라 환자들의 심리적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봉사했다.¹⁴⁾ 그리고 중국청년자원봉사협회에 참여한 자원봉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체온 측정과 출입등록 관리업무, 의료진을 위

13) 中共湖南省委党校, “论突发公共卫生事件治理中的公众参与”, 『湖南行政学院学报』, 4旗, 2021. p.97.

14) “防疫“临时工”传递众志成城的中国力量”, 『中国青年网』,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855994461662828&wfr=spider&for=pc>(검색일: 2021.07.20).

한 음식배달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SNS를 사용하여 환자가 병상을 찾도록 돕고, 자원 봉사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며, 전 세계에서 보호 장비를 구매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에 협력¹⁵⁾하였다.

둘째, 물질적 지원에 동참이다. 돌발적인 공중위생 사건의 증대한 문제 중 하나는 물자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물자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된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정부가 물자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중 참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중국 적십자사 홈페이지인 ‘공작동향’에 따르면 2020년 2월 22일 17시 중국적십자회 총회와 중국적십자기금회가 코로나19 방지에 사용할 사회기부금은 총 12.89억 위안(2,327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¹⁶⁾

셋째, 대중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통제 및 감독활동에 동참하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조언과 제안을 제시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국가의 방역 조치를 감독 관리하였다. 국무원의 ‘인터넷+감독(互联网+督查)’과 같은 국가참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지방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소통하고 정부는 여론을 받아들여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등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동참하였다.¹⁷⁾

Ⅲ. 코로나19 국제적 방역대응

중국이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성과를 보이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해외 주변국들은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국은 국제적 대응 조치로 자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의료지원을 통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15) Li Yuan, “In Coronavirus Fight, China Sidelines an Ally: Its Own Peopl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2/18/business/china-coronavirus-charity-supplies.html> (검색일: 2021.12.17).

16) “红十字会总会：截至22日17时共接受捐赠款物逾12.89亿”, 『中国新闻网』, <https://www.china-news.com/m/cj/2020/02-23/9101879.shtml?f=qbapp>(검색일: 2021.07.20).

17) 中共湖南省委党校(2021), p.98.

1. 코로나19 진원지 문제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폭발적 증가와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적 손실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떠오른 코로나19의 국제사회 이슈 중 하나는 진원지 문제이다.

서방국가들이 코로나19의 발생지로 환자가 최초 보고되고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중국을 지적하고 있어 공공보건사건이 국제정치의 문제로 전이되었다. 서구 언론의 ‘코로나19 제조 연구소’, ‘중국 제조론’ 등 민감한 언론보도로 반증정서가 고조되었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숨겨 다른 국가의 대응을 지연시켰다며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중국 배상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18개 연방 정보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정보 당국에 요청¹⁸⁾하였고, 그 초점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로 집중되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간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와 관련해 두 갈래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같은 1차 동물에서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전파됐다는 ‘자연전파설’과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연구소 유출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우한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직원 감염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extremely unlikely)’ 하다고 지적하였고, 중간 동물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다는 가설에 ‘가능성이 매우 높음(likely to very likely)’ 으로 판단¹⁹⁾하여 자연전파설에 무게를 두었다.

중국 화난농업대학(华南农业大学)의 연구진 역시 자연전파설에 기원을 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천산갑에서 분리한 균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상동성이 99%라 밝히고, 천산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중간 숙주로 천갑산을 통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²⁰⁾

18) 김필규, “코로나 우한연구소 발원설에 바이든 나섰다 “90일 내 보고하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8192> (검색일: 2021.08.17).

19) WHO, 『WHO-convened Global Study of Origins of SARS-CoV-2: China Part』, 2021. p.9.

20) “华南农业大学发现穿山甲为新冠病毒潜在中间宿主”, 『央视网』,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837156996860990&wfr=spider&for=pc>(검색일: 2021.12.17).

하지만 WHO 보고서는 바이러스가 시작한 곳으로 알려진 화난(华南)시장 지역에서 진행한 가축이나 야생 동물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혀 자연기원설을 증명하기 어렵고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²¹⁾

연구소 유출설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우한 화난(華南)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약 30km 떨어진 시내에 위치한 연구시설 중국과학원 산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武漢病毒研究所)가 진원지라고 전하고²²⁾, 이어서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중국 생물무기 개발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스라엘 군 관계자의 분석을 전하면서 연구실 유출설이 제기 되었다.²³⁾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로 단정하고 연구소 유출설을 제기하였다.²⁴⁾

그러나 이탈리아 밀라노의 마리에 네그리 약학연구소 소장인 주세페 레무치(giuseppe remuzzi)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PR)과의 인터뷰에서 “북이탈리아 롬바르디 지역에 이상하고 심각한 폐렴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기 전 이미 바이러스가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퍼지고 있었다”²⁵⁾고 밝혀 우한 발생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中国延安精神研究所(중국연안정신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 이미 미국 생화학무기 기지인 포트데트릭(Fort Detrick)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유출이 있었고 주변으로 전파 확산됐다고 보고하고 있어²⁶⁾ 미중간의 코로나19 연구실 유출설을 둘러싼 진원지문제가 더욱 증폭되었다. 현재 코로나19 진원지 문제와 관련된 ‘자연발생설’과 ‘연구소 유출설’ 모두 문제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못

21) WHO(2021), p.47.

22) NATALIE RAHHAL, “China built a lab to study SARS and Ebola in Wuhan - and US biosafety experts warned in 2017 that a virus could ‘escape’ the facility that's become key in fighting the outbreak”, 『Daily mail』,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7922379/Chinas-lab-studying-SARS-Ebola-Wuhan-outbreaks-center.html> (검색일:2021.12.17).

23) Bill Gertz, “Coronavirus link to China biowarfare program possible, analyst says”, 『The Washington Times』,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jan/26/coronavirus-link-to-china-biowarfare-program-poss/> (검색일: 2021.12.17).

24) Chris Cillizza, “Yes, of course Donald Trump is calling coronavirus the ‘China virus’ for political reasons”, 『CNN politics』, <https://edition.cnn.com/2020/03/20/politics/donald-trump-china-virus-coronavirus/index.html> (검색일: 2021.12.17).

25) 윤창수, “이탈리아 의사 “지난해 11월 북부 지역서 이상한 폐렴 발생”,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3500024> (검색일: 2021.08.17).

26) “全面揭露新冠病毒事件的起源、传播和爆发的真相”, 『中华魂』, <https://www.1921.org.cn/post.html?id=5e6983be3001147d8024f908>. (검색일: 2021.07.21).

하는 담보 상태에 처해있다.

코로나19 진원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언론전은 과학영역의 바이러스 문제가 오히려 ‘정치적 바이러스’로 변질돼 국제사회에 혼란만 야기 시키고 방역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올 뿐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방역을 위해 신뢰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백신개발 프로젝트와 공공재화

코로나19의 놀라운 전파 속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은 국가들로 하여금 국경을 통제하는 등 차단과 봉쇄로 대응하도록 만들었다.²⁷⁾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은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집단면역 프로세스가 추진되면서 코로나 19 백신의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브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사무총장은 백신은 공공재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과 다른 도구를 공유해야 세계가 함께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⁸⁾ 이는 일부 국가가 백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대규모 선 구입 계약을 맺는 ‘백신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중국이 개발하는 백신은 차별 없이 세계에 공유되는 공공재가 될 것”이라 강조²⁹⁾하며 백신이 공공재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중국의 조치와 반대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걸고 미국이 전후에 구축한 다자주의 체계를 무시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면적 협력을 피하고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게다가 2020년 4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³⁰⁾하였고,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코로나19 백신의 공공재 문제에 관해 중국과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들이 공중 보건 비상상

27) 이규창 외,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20), p.25.

28) 한지연, “美·日 코로나 백신 사들이자...“민족주의 안돼” WHO의 경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715020746089> (검색일: 2021.08.25).

29) 김대기·이재철, “시진핑 “코로나 대응에 20억달러 지원할 것””,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508079/> (검색일: 2021.08.25).

30) 송수경, “트럼프, WHO 자금지원 중단...“기본채무 실패 반드시 책임물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5014452071> (검색일: 2021.08.12).

황 발생 시 지식재산권을 무시할 수 있다고 결의한 ‘도하 선언’에 대해 미국은 특히 공유 반대의 입장³¹⁾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공조를 경시하고 국제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의 국제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식재산권(IP)의 일시중지를 지지한다고 밝혀³²⁾ 백신의 공공재 문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나 백신을 개발한 미국, 유럽연합 등에 위치한 거대 제약사들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고, WTO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이후 백신 개발이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백신개발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 서열 정보를 최초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³³⁾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의 백신은 개발 속도가 느리고, 막대한 자금, 인적자원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국은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무위원회 연구 태스크포스(TF)인 백신 연구개발팀을 꾸렸고 백신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중국은 백신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5개의 기술노선을 정하고 14개의 백신 개발사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현재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12개의 백신 중 시노팜(Sinopharm)의 BBIBP-CorV, 시노백(Sinovac)의 코로나백(Coronavac), 칸시노(Cansino)의 Ad5-nCoV 3개를 보유해 효과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을 위한 기술노선이 다양하고 원리에 따라 백신의 예방효과 역시 차이가 있다. 중국 시노팜에서 개발한 BBIBP-CorV 백신은 불활성화 바이러스를 인체에 2회 주입하는 방식으로 79%의 예방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접종대상 나이는 18~59세, 보관온도는 섭씨 2~8도로 미국의 모더나(영하20도), 화이자(영하70도)와 비교하여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시노백에서 개발한 코로나백(CoronaVac) 백신 역시 비활성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2회 접종에 51% 예방효과를 가지고, 접종대상 나이는 18세 이상이다. 칸시노 백신은 위의 두 백신과는 다르게 바이러스 벡터(Viral

31) 박준우, “‘코로나 백신’ 충돌…美 “지재권 인정” vs 中 “개발땀 공유”,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001031239274001> (검색일: 2021.08.25).

32) Trevor Hunnicutt, “Biden decided to support IP waiver for vaccines –White House”,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biden-made-decision-support-ip-waiver-covid-19-vaccines-white-house-2021-05-06/> (검색일: 2021.12.17).

33) 王丹蕾, “新冠疫苗研发, 中国为何全球领先”, 『光明日报』, http://news.cnr.cn/native/gd/20210107/t20210107_525385318.shtml (검색일: 2021.07.10).

vector)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술노선을 가진다. 칸시노 백신은 1회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예방효과는 65.7%이며 중증에 대해서는 90.07%의 예방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년간 냉장 보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³⁴⁾ 보관기간이 길고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5월과 6월 각각 중국 시노팜과 중국 시노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한 상황이다.

〈표 2〉 중국 개발 백신³⁵⁾

개발사	백신명	개발 플랫폼	예방효과 접종 횟수	대상나이	보관온도	비고
시노팜	BBIBP-CorV	비활성 백신	79.34% 2회	18~59세	2℃~8℃	긴급사용 승인
시노백	CoronaVac	비활성 백신	50.65% 2회	18세 이상	2℃~8℃	긴급사용 승인
칸시노 바이오로직스	Ad5-nCoV	바이러스 벡터	65.28% 1회	18세 이상	2℃~8℃	

출처: “中国新冠疫苗有几种 国内四款新冠疫苗的区别”, 『养生知识网』, 연구자 재정리

코로나 19 백신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희망을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공급과 분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개발 초기 미국의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의 백신이 가장 먼저 사용승인을 받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의 백신 개발 성공이 가시화 되면서 시진핑(习近平)주석은 지난 8월 5일 ‘코로나19 백신 협력 국제포럼’에서 중국이 올해 전 세계에 2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고 코백스(COVAX·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개도국 백신 지원 프로젝트)³⁶⁾에 1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중국이 자체 코로나19 방역과 접종 수요를 충족시키

34) 신정은, “중국 軍·칸시노, ‘1회 접종이면 OK’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29050560&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21.08.26).

35) zhaoxy, “中国新冠疫苗有几种 国内四款新冠疫苗的区别”, 『养生知识网』, <http://www.jkangyans.com/xinwen/4717.html> (검색일: 2021.08.26).

36) 세계보건기구(WHO)·감염병혁신연합(CEPI)·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힘든 개발도상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면서 전 세계 인구 10% 가량의 백신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중국이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여기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³⁷⁾

중국은 연 6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라인 확장을 통해 2021년 말 약 20억 도스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⁸⁾ 중국이 개발한 백신은 2~8도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해, 모더나와 화이자 같이 초저온 유통 환경이 필요하지 않아 초저온 유통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21년 8월 중국은 개도국 위주의 100개국 이상에 원조, 수출, 공동 생산 등의 방식으로 총 7억7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3분 1 이상이 아프리카 지역이고 향후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전란 지역에도 백신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에 잇따라 자국산 백신 공여 계획을 발표하고, 백신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³⁹⁾

IV. 중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와 과제

1. 국내적 대응 평가

중국의 코로나19 국내적 대응에 대한 평가는 방역대처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고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14억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라는 것과 1,100만의 인구를 가진 우한시를 2달여 기간 동안 봉쇄하고 엄격한 추적관리를 통해 전국적인 안정화를 이루었다는 점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중국 중앙의 집중적이고 일괄적인 지도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우세로 강력한 사회 동원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우한시에 건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10일 만에 휘선산(火神山) 병원과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을 건설하고, 4만 여명 이상의 의료진을 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 점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각 부처의 대처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 재정부(財政部)의 선(先)치료 원

3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国际经济司司长王小龙举行对外提供新冠疫苗吹风会》, 2021. http://news.cnr.cn/native/gd/20210810/t20210810_525558251.shtml (검색일: 2021.08.26).

38) “多方测算, 预计2021年底中企疫苗产能至少20亿剂”, 『新浪财经』, <https://baijiahao.baidu.com/s?id=1685415768960601065&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8.12).

39) 《习近平在全球健康峰会上的讲话(全文)》,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world/2021-05/21/c_1127476371.htm. (검색일: 2021.07.13).

칙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와 상무부(商务部)의 원활한 물자공급 조치, 해관(海关)의 ‘무지연’ 통관은 위기상황에서 중국의 자원집중력과 과감한 정책 결정 능력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그물망 같은 관리체계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도시의 사구를 중심으로 한 격자화(그물망)관리는 전 지역을 세밀히 관찰하고 통제하여 대중이 자기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전염병에 대한 단체예방, 단체관리를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셋째,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국의 시민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체제는 사회주의의 국가지만 그동안 개인은 주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 사스, 에볼라 등과 같은 위험 상황에도 대중의 지지와 참여가 적어 그간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도 방역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대중의 지지와 참여로 중국의 대중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는 방역에 긍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IT와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방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방역을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되었고, 강력한 봉쇄 조치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한을 갑작스럽게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자유와 이주권이 제약을 받았고, 공중위생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국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일반 대중은 코로나19의 방역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 알권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의 국가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다는 사회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대중을 위한 생명권 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立法规划)에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을 처음으로 편입시켰다. 《2018년 정무공개 공작요점 통지》(2018年政务公开工作要点的通知)에서 법령에 따라 징계적 정보 공개 및 의무적 정보공개 외에도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타 정부 정보의 경우 공개 시 적절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⁴⁰⁾ 그러나 정부정보공개조례《政府信息公开条

40) 中国政府网,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2018年政务公开工作要点的通知》. 2018. <http://www.gov.cn>

例》에 관한 규정에 행정기관은 제3자가 공개에 동의하거나 미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알권리 규정에 충돌이 발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정되지 않아 모호한 상황이다. 게다가 개인의 정보 수집과 공개의 방법 및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름, 성별, 나이 주소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진료기록, 건강진단자료, 활동 범위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어 문제가 심각하다.⁴¹⁾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신공격과 사이버테러, 보이스 피싱, 범죄이용 가능성 등 다양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국제적 대응 평가

중국의 코로나19 국제적 대응으로 진원지 문제와 백신개발과 공공재화 문제를 살펴봤다. 중국의 국제적 대응은 중국내 확산이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중국이 외부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국제적 대응이 효과적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번 대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그동안 공들여온 외교력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사스는 중국의 늦장대응과 정보은폐의 연유로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초래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상실했고,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은 거세졌다. 당시 많은 서방국가들이 중국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과장된 보도를 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위협론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코로나19 진원지’ 라는 이미지는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진원지 문제는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태로 국제적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오명이 희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외교적 실리를 얻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언급한 것처럼 제공된 정보와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심도 있는 조사가 어려워 향후 보안을 위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권고⁴²⁾하였다는 것은 중국이 진원지 문제에서

v.cn/zhengce/content/2018-04/24/content_5285420.htm (검색일: 2021.12.17).

41) 张涵, “大数据背景下突发公共卫生事件中的公众知情与隐私保护—以新型冠状病毒疫情为例”, 『科学与管理』, Vol.41, No.6, 2021年, p.49.

42) WHO(2021), p.47.

완벽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공공위생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 대신 여론전을 선택해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중국의 백신개발과 공공재화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심해지고,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주변국에 백신을 무상 공급함으로써 주변국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의심을 잠식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회사가 백신의 공공재화에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은 백신의 공공재화를 우선시하였다는 점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동남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 백신을 우선 공급했다는 점, 백신 생산기지 건설 제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가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백신이 변이에 취약하고 효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게다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월 개최된 쿼드 정상회담에서 인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도스 생산을 위한 기술·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⁴³⁾하여 백신이 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고 미국과 중국의 백신원조가 경쟁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관된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에 백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국 역시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백신 지원이 인도적 차원을 넘어 자국의 우방을 확보하고 편 가르기 위한 외교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의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라는 정치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보여주었다. 우한 봉쇄에서 들어난 인권문제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진원지 문제에서 보여준 완벽하지 못한 정보의 투명성, 백신에서 들어난 효과의 검증 문제 등이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중국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락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회복과 글로벌 리더로서 자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3) Michelle Ye Hee Lee, "Meeting of leaders signals the 'Quad' grouping will become central part of the U.S. strategy in Asia",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quad-diplomacy-counter-china/2021/03/12/9317aee8-8299-11eb-ac37-4383f7709abe_story.html (검색일: 2021.12.17).

V. 결론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는 빠른 확산과 변이를 거듭하며 그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앞으로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안보의 개념이 기존의 군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다양한 이슈의 비전통 안보문제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중국은 코로나19라는 의도하지 않은 위기에 대항하여 대내외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대응조치의 결과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지방정부의 격자화+IT를 통한 체계적 관리, 대중의 적극적 방역 동참의 유기적 결합은 코로나19방역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방역성공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백신개발 및 공공재화를 통한 백신외교의 진행과 국제지원 및 의료지원은 인류위생건강공동체(人类卫生健康共同体)와 같은 국제 공공보건인프라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과도한 중앙 집중주의와 수직적 위계질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한은 끊임없이 중국 정치의 내부적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사스와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했고 전염병 대응을 위한 법률체계와 행정체계의 현대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방정부 역시 그에 대응하는 관리체계와 집행력에 변화가 있었다. 이번 코로나19의 방역 성공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대응 능력과 중앙의 집행능력이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하지만 방역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우한 봉쇄조치와 프라이버스 침해와 같은 문제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이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 위생사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후 전염병 대유행이 다시 도래할 경우 모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라고 했던 올리히 벡의 말처럼⁴⁴⁾ 바이러스는 자유주의나 공산주의, 선진국, 후진국을 구분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에 대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에서 중국은 백신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고, 발 빠른 백신원

44) 올리히 벡, 백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서울: 새물결, 2006), p.77.

조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원조에 대해 중국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따르지만 백신은 저개발국가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므로 중국의 공적원조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성 검증 문제가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추락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회복과 글로벌 리더로서 자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국제적 보건의로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미·중 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여론전은 상호간 불신과 반감을 확산시켰고, 결과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양국의 더욱 요원해 보인다.

게다가 경쟁적인 백신원조는 외교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편 가르기 경쟁이 된다면 주변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넓은 시장을 무기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무기로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바이러스는 봉쇄와 국경차단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초국가적 협력과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대응과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미국과 중국이 책임론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기 보다는 선제적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태세전환을 기다리기 보다는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경적 공공위생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올리히 벡, 백성태 옮김,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서울: 새물결, 2006.
- 이규창 외,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20.
- 방성운, “코로나시기 비전통 안보의 재조명 -중국의 新时代 식량안보관과 한국의 전략-”, 『대한정치학회보』, 29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21), 219-244.
- 조영남,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분석: 중앙의 지도체제와 선전 활동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4권 제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0), 7-44.
- 조영남, “중국 어떻게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나?: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9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107-138.
-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방역 중국 대응 백서》(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 2020.
- 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COVID-19肺炎流行病学特征分析』, 北京: 新华出版社, 2020.
- 马忠, “抗击新冠肺炎疫情的公众参与问题研究”, 『中州学刊』, 第3期, 2020, 1-6.
- 王兵, “新冠肺炎疫情背景下的城市网络化防控和精细化管理”, 『中国名称』, Vol.35 No.7, 2021, 41-46.
- 王德起, “新冠肺炎疫情防控体系研究—基于“党建+”社区治理视角”, 『统计与管理』, 第4期, 2021, 47-51.
- 王永龙, “疫情防控下社区网格化管理优化策略研究”, 『攀登』, 第40卷, 2021, 93-101.
- 中共湖南省委党校, “论突发公共卫生事件治理中的公众参与”, 『湖南行政学院学报』, 4期, 2021, 96-102.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国际经济司司长王小龙举行对外提供新冠疫苗吹风会》, 2021.
- 《习近平在全球健康峰会上的讲话(全文)》, 『新华网』, 2021.05.21.
- WHO. 『WHO-convened Global Study of Origins of SARS-CoV-2: China Part』, 2021.
- 신문, 매거진
- 김대기·이재철, “시진핑 "코로나 대응에 20억달러 지원할 것”,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508079/>
- 윤창수, “이탈리아 의사 “지난해 11월 북부 지역서 이상한 폐렴 발생”,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3500024>

- 신정은, “중국 軍·칸시노, ‘1회 접종이면 OK’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29050560&mediaCodeNo=257&OutLnkChk=Y>
- 박준우, “‘코로나 백신’ 충돌…美 “지재권 인정” vs 中 “개발엔 공유”,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001031239274001>
- 김필규, “코로나 우한연구소 발원설에 바이든 나섰다 “90일 내 보고하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8192>
- 송수경, “트럼프, WHO 자금지원 중단…“기본책무 실패 반드시 책임물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5014452071>
- 한지연, “美·日 코로나 백신 사들이자…“민족주의 안돼” WHO의 경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715020746089>
- “多方测算, 预计2021年底中企疫苗产能至少20亿剂”, 『新浪财经』, <https://baijiahao.baidu.com/s?id=1685415768960601065&wfr=spider&for=pc>
- “防疫“临时工”传递众志成城的中国力量”, 『中国青年网』,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855994461662828&wfr=spider&for=pc>
- “红十字会总会: 截至22日17时共接受捐赠款物逾12.89亿”, 『中国新闻网』, <https://www.china-news.com/m/cj/2020/02-23/9101879.shtml?f=qbapp>
- “华南农业大学发现穿山甲为新冠病毒潜在中间宿主”, 『央视网』,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837156996860990&wfr=spider&for=pc>
- “面对西方舆论攻击, 三个事实让中国力量空前强大”, 『新浪财经』, <http://finance.sina.com.cn/wm/2020-03-30/doc-iimxyqwa4108292.shtml>
- “全面揭露新冠病毒事件的起源、传播和爆发的真相”, 『中华魂』, <https://www.1921.org.cn/post.html?id=5e6983be3001147d8024f908>
- “孙春兰率中央督导组赴湖北随州指导强调关口前移, 为群众守好健康之门”, 『人民网』, <http://cpc.people.com.cn/n1/2020/0218/c64094-31591420.html>
- “武汉市纪委监委通报4起违反疫情防控工作纪律典型问题”, 『光明网』, https://politics.gmw.cn/2020-02/18/content_33564846.htm
- “纸尿裤生产线改做口罩 数千家企业应对疫情紧急转产”, 『央视』, <https://baijiahao.baidu.com/s?id=1658511834847005924&wfr=spider&for=pc>
- zhaoxy, “中国新冠疫苗有几种 国内四款新冠疫苗的区别”, 『养生知识网』, <http://www.jkangyans.com/xinwen/4717.html>
- “蔣超良被免内幕 鍾南山團隊披露武漢始末”, 『華客』, <https://hcx.eu/news/75268.html>

Trevor Hunnicutt, “Biden decided to support IP waiver for vaccines –White House”,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biden-made-decision-support-ip-waiver-covid-19-vaccines-white-house-2021-05-06/>

NATALIE RAHHAL, “China built a lab to study SARS and Ebola in Wuhan – and US biosafety experts warned in 2017 that a virus could ‘escape’ the facility that’s become key in fighting the outbreak”, 『Daily mail』,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7922379/Chinas-lab-studying-SARS-Ebola-Wuhan-outbreaks-center.html>

Bill Gertz, “Coronavirus link to China biowarfare program possible, analyst says”, 『The Washington Times』,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jan/26/coronavirus-link-to-china-biowarfare-program-possible/>

Li Yuan, “In Coronavirus Fight, China Sidelines an Ally: Its Own Peopl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2/18/business/china-coronavirus-charity-supplies.html>

Michelle Ye Hee Lee, “Meeting of leaders signals the ‘Quad’ grouping will become central part of the U.S. strategy in Asia”,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quad-diplomacy-counter-china/2021/03/12/9317aee8-8299-11eb-ac37-4383f7709abe_story.html

Chris Cillizza, “Yes, of course Donald Trump is calling coronavirus the ‘China virus’ for political reasons”, 『CNN politics』, <https://edition.cnn.com/2020/03/20/politics/donald-trump-china-virus-coronavirus/index.html>

인터넷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 공공위생사건돌발응급조례(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条例).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1=1&searchPageRowCnt=50&A=A&AST_SEQ=1911&searchType=all&CTS_SEQ=7409&pageIndex=1&ETC=12195

中国政府网,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2018年政务公开工作要点的通知》. 2018.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4/content_5285420.htm

• Abstract •

Is China's response to COVID-19 successful? :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Jingchao Gao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ngwoon Bang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ona 19, which occurred in 2019, spread in an instant to not only East Asia but also to all of Europe, and suffered serious damage in almost every field in which mankind is involved.

Tensions are rising day by day due to the war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issue of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COVID-19 served as an opportunity to amplify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issue of public goods of vaccines has spread to the vaccine diplomacy war.

China's COVID-19 quarantine response is not just an act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but domestic system stability and abroad, it should be viewed as an active response strategy for improving China's negative image and restoring leade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s, effects, and problems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China. As a domestic response, it examines the response of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participation. As an international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mines and evaluates the issue of the origin of COVID-19 and the issue of vaccine development.

Key words : COVID-19, Response system, public participation, COVID-19 Origin, Vaccine.

논문투고일: 2021.11.22
논문심사완료일: 2021.12.24
논문게재확정일: 2021.12.25